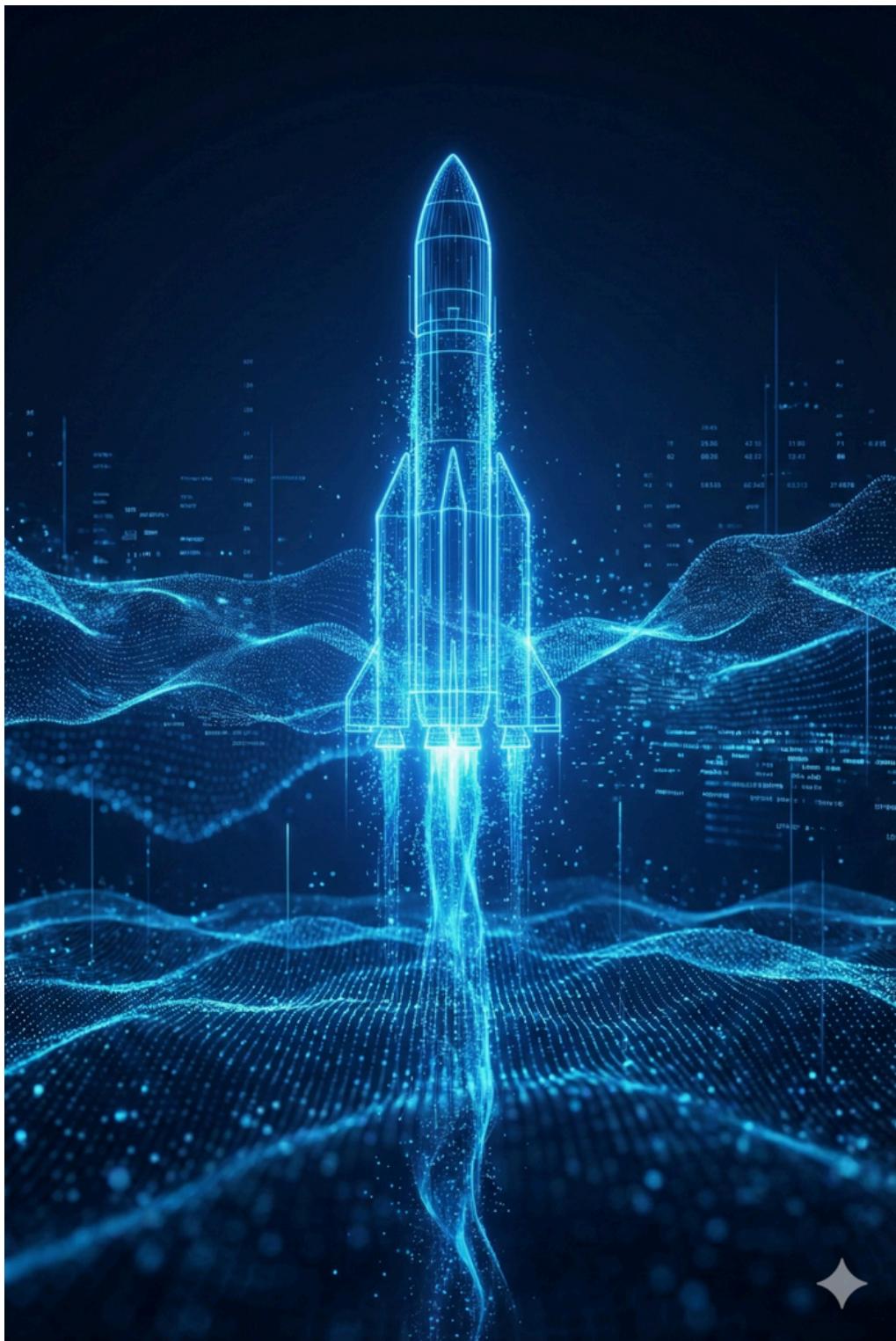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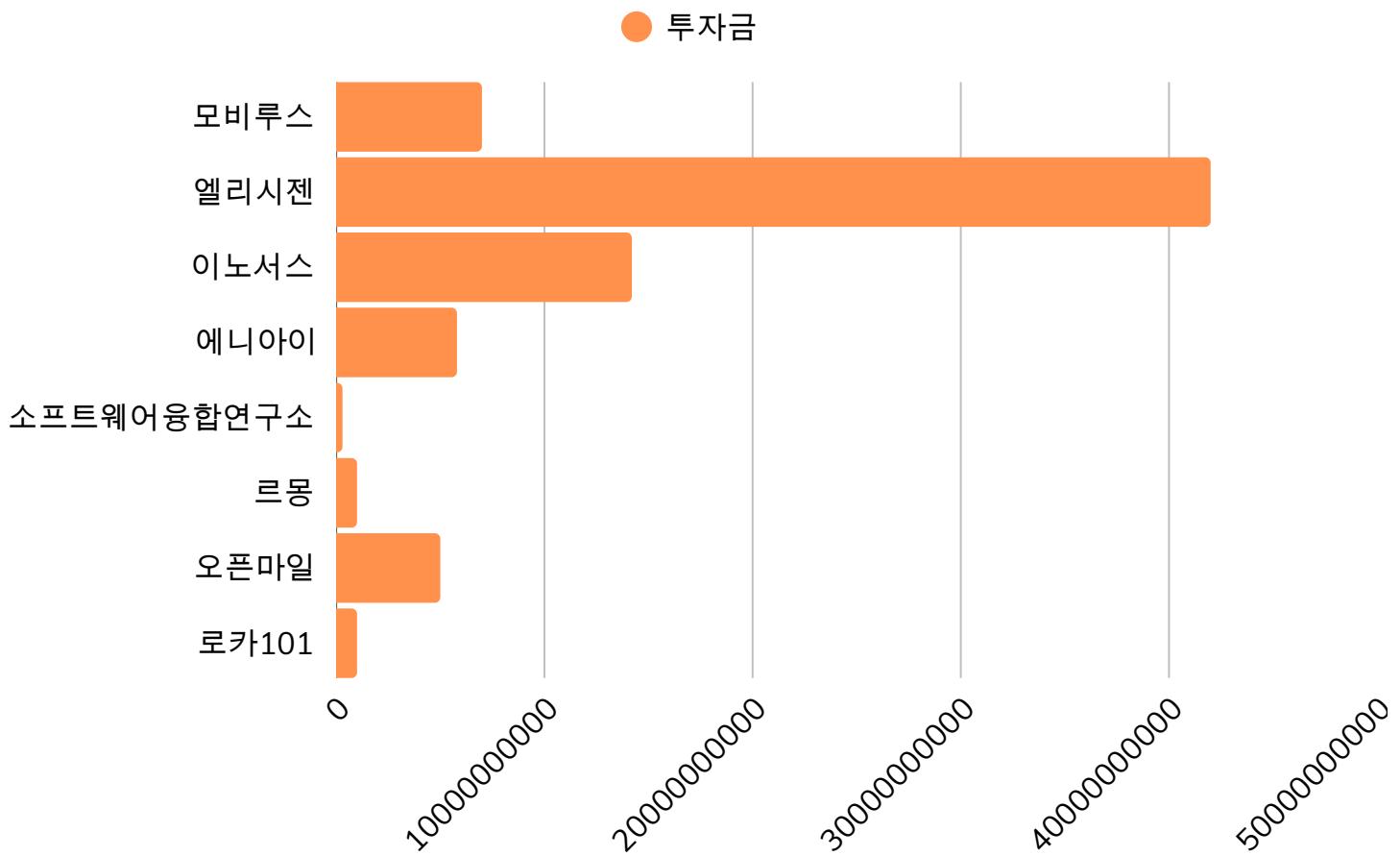
WEEKLY STARTUP RECIPE



startuprecipe
RECIPE FOR START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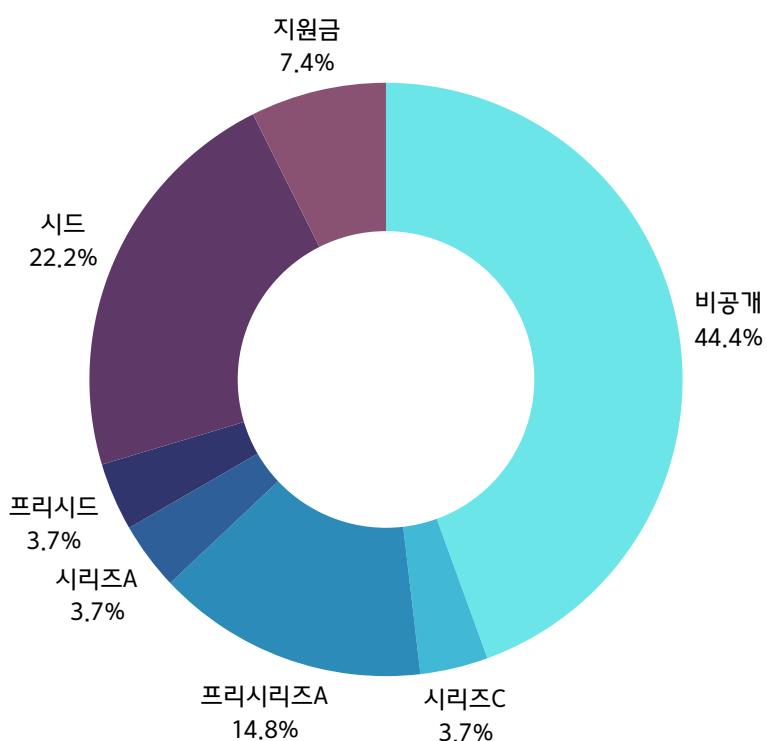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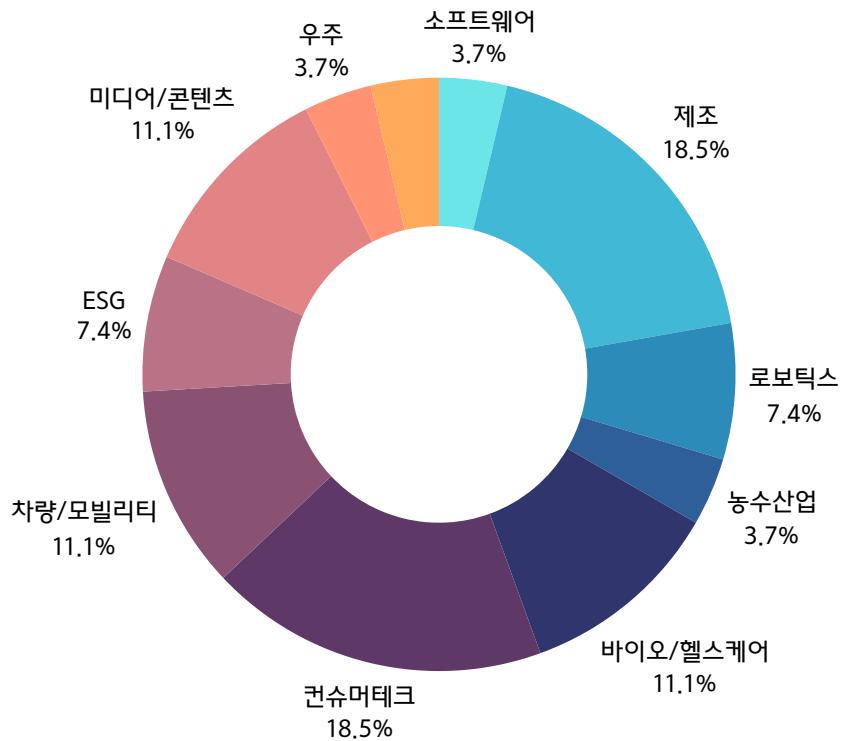
2026년 1월 19-23일 주간 투자 동향



2026년 1월 19~23일 주간에는 전체 투자 유치 기업수는 27개이며 이 가운데 투자액을 공개한 8개 기업이 763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단계별/분야별 투자 규모





이번주 단계별 투자 규모의 경우 시드가 22.2%로 가장 높았고 프리시리즈A 14.8%, 지원금 7.4% 순을 나타냈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제조와 컨슈머테크가 각각 1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미디어/콘텐츠와 차량/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가 각각 11.1%로 뒤를 잇는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주요 투자 유치 기업

이번주 주요 투자 유치 기업으로는 유전자치료제 기업인 엘리시전이 50억원 투자를 추가 유치하며 420억원 규모 시리즈C 라운드를 마감한 가운데 미용 의료기기 기업인 이노서스가 142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해 뒤를 이었다.

모비루스 : 70억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모비루스가 원익투자파트너스로부터 70억원 규모 투자를 확보했다. 이번 투자에는 PE와 VC 부문이 함께 참여했으며, PE가 50억원, VC가 20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모비루스는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 인력 확충과 기술 고도화에 집중 투입해 농기계와 건설 중장비 분야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05년 설립된 모비루스는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초기에는 자동차용 AVN 소프트웨어를 현대차와 GM 등에 공급하며 입지를 다졌다. 이후 완성차 자율주행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해 농기계와 중장비라는 틀 새시장을 공략해 왔다. 국내 대동과 공동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상용화했고 일본 기업들과도 협력 논의를 진행 중이다. 매출은 2021년 45억원에서 2024년 121억원으로 성장했으며, EBITDA도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투자로 모비루스는 주요 주주로 원익투자파트너스를 맞이하며, 산업 전반에서 확대되는 자율주행 수요에 대응할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엘리시젠 : 420억원 시리즈C



유전자치료제 기업 엘리시젠이 데일리파트너스와 NH투자증권으로부터 50억원을 추가 유치하며 총 420억원 규모의 시리즈C 라운드를 최종 마감했다. 이번 투자에는 K-바이오 백신 3호 펀드가 참여했으며, 앞서 산업은행과 주요 벤처캐피털들이 이미 시리즈C에 합류한 바 있다. 엘리시젠은 누적 투자액 88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최대주주는 이연제약이다. 회사는 확보한 자금을 습성 노인성황반변성(wAMD) 치료제 후보물질 'NG101'을 비롯한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개발과 글로벌 사업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NG101은 VEGF 저해 AAV8 기반 유전자치료제로, 북미 임상 1/2a상에서 환자 투여를 완료했으며 올해 중반 장기 추적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기존 치료제 대비 단회 투여로 장기간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 환자 부담을 줄이는 차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시젠은 이번 라운드를 통해 K-바이오 백신펀드 1호부터 3호까지 모두 유치한 사례를 만들며,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이노서스 : 142억원 시리즈A

Innoxus

미용 의료기기 스타트업 이노서스가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한 투자사들로부터 142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확보했다. 이번 투자에는 시드 단계에서 회사를 발굴했던 테일벤처스의 구주 매각도 포함됐다. 2022년 설립된 이노서스는 암 치료 기술을 미용 리프팅에 접목한 ‘올타이트(Alltite)’를 개발했으며, 국제 특허 출원된 DLTD 기술을 통해 진피층을 집중 가열해 통증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방식을 구현했다. 올타이트는 진피층과 근막층을 동시에 타깃팅하는 듀얼 리프팅 효과로 기존 RF와 HIFU 방식의 장점을 결합했으며, 부작용 위험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제품은 일본, 홍콩, 브라질 등 해외 시장에서 이미 300대 이상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출시 10개월 만에 200대 이상 판매를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노서스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사들은 뷰티와 제조, 기술력이 결합된 이노서스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기대하고 있다.

에니아이 : 58억원 프리시리즈A 브릿지

Aniai

로봇 키친 스타트업 에니아이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400만 달러 규모의 프리시리즈A 브릿지 투자를 확보하며 누적 투자금 1,9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에니아이는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AI 조리로봇 ‘알파 그릴’을 상용화하고 있으며, 현지 버거 전문점과 한식 매장에 장비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글로벌 패스트푸드 기업과의 파일럿 테스트도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롯데리아, 맘스터치, 프랭크버거 등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로봇을 도입했다. 산업은행은 에니아이의 미국 사업 성과와 기술 경쟁력을 높게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으며, 알파 그릴의 확장 가능성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에니아이는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해 원격 업데이트와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미국 사업 확대와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르몽 : 10억원 프리시리즈A



외식업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르몽이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 디캠프와 블루포인트파트너스에서 10억 원 규모의 프리 A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르몽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17억 원에 달한다. 르몽은 자체 개발한 '루미니르 AI' 기술을 기반으로 AI 리뷰 관리 솔루션 '댓글몽' 등을 1만 5,000곳 이상의 외식업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고객사에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특히 설립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달성하고 2년 연속 건전한 재무구조를 입증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보였다. 르몽은 이번 투자금을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대상 종합 마케팅 AI 에이전트 '비즈몽' 개발 고도화와 핵심 인력 확보에 사용할 계획이다. 공동대표는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외식업 시장 1등 AI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픈마일 : 50억원



모빌리티 통합 관리 플랫폼 기업 오픈마일이 벤처캐피털로부터 5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확보했다. 이번 자금은 기업공개(IPO) 전 외형 확장을 위한 조치로, 오픈마일은 렌터카 판매·대차 중계 플랫폼 인수를 추진 중이다. 투자자는 어니스트벤처스와 신영증권이 결성한 '어니스트-신영 페이스 메이커 투자조합'이며, 기업가치는 약 850억 원으로 평가됐다. 오픈마일은 올해 영업이익 65억 원 달성을 내년 IPO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설립된 오픈마일은 차량 탁송에서 출발해 중고차 매매, 상용차 관리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2024년 매출 444억 원을 기록했지만 4년 연속 적자를 이어왔다. 지난해 AJ네트웍스의 정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며 정비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렌터카 플랫폼 인수로 판매와 정비를 결합한 사업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이번 투자유치가 오픈마일의 수익성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향후 IPO 성패는 렌터카 사업 확장 성과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프리미엄 고시원 브랜드 픽셀하우스를 운영하는 로카101이 콜즈다이나 믹스로부터 누적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확보했다. 2020년 창업 이후 5년간 전국 60여 개 지점, 1,100여실을 운영하며 폐업률 0%를 기록한 로카101은 보증금 20만 원, 월세 70만 원대의 합리적 조건으로 청년과 외국인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췄다. 직영·가맹점 평균 수익률은 20%에 달하며, 최근 서울시 우수 소셜벤처로 선정되기도 했다. 로카101은 2026년까지 전국 100개 지점 확장을 목표로 지방 도시와 협력해 청년 주거 모델을 구축하고, AI 기반 임대관리 시스템과 블라인드 펀드 조성으로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형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스토리지·오피스를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확장하며 도시재생에도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투자 유치는 안정적 수익 구조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결합한 사례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주거 혁신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로 평가된다.

주간 체크 포인트

AI 기본법 시행...투명성 확보 핵심은?=인공지능(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로 해외 사업자도 포함되며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AI 기본법은 1년 이상 규제 유예 기간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의무 내용>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거나 앱 구동화면, 오프라인 안내문 표시. AI 생성물 표시 의무에서는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이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이용되는 경우(유연하게 표시)와 외부 반출되는 경우(워터마크, 음성안내, 메타데이터 등)로 구분. 가상 생성물(딥페이크)은 반드시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2026년 1월 19-23일 투자 현황

기업명	분야	투자금	투자단계	투자사
오픈웨딩	스몰웨딩 플랫폼	비공개	기타(비공개)	월드플로라
에이센텍	레이더·비전 융합 센서 솔루션	비공개	기타(비공개)	제이엔피글로벌
헥사휴먼케어	웨어러블 로봇	비공개	기타(비공개)	패션그룹형지
모비루스	농기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70억원	기타(비공개)	원익투자파트너스
엘리시젠	유전자 치료제	420억원	시리즈C	데일리파트너스, NH투자증권, 한국산업은행, 프리미어파트너스, 한국투자파트너스, 유안타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에니아이	로봇 키친	58억원	프리시리즈A	산업은행
이노서스	미용 의료기기	142억원	시리즈A	알토스벤처스
모프시스템즈	미국 제조업 데이터 통합 플랫폼	비공개	프리시드	매쉬업벤처스
노바에어	항공 난기류 진단·예측 솔루션	비공개	시드	브이엔티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에스아아디파트너스
다다닥헬스케어	비대면 소아과	비공개	시드	엠와이소셜컴퍼니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	비침습 혈당 측정 솔루션	3억원	시드	오라클-벡터지역혁신펀드
웨어러블에이아이	AI 자율주행	비공개	지원금	딥테크팁스
휴먼푸드	B2B 위탁급식	비공개	인수합병	위편
두리컴퍼니	영유아식 브랜드	비공개	시드	더벤처스
르몽	외식업 AI 전문 기업	10억원	프리시리즈A	디캠프,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엔포러스	고온수전해(SOEC) 솔루션	비공개	시드	포스코홀딩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모놀리	딥테크 스타트업	비공개	프리시리즈A	스톤브릿지벤처스, LF인베스트먼트
수앤캐롯츠	외국인 커뮤니티 앱	비공개	기타(비공개)	김기사랩
프라임마스	AI 반도체 팹리스	비공개	기타(비공개)	엠디에스테크
큐트컷	숏폼 영상 기획 자동화 AI	비공개	시드	제조창조경제혁신센터
레오스페이스	소형위성 탑재체	비공개	기타(비공개)	컨텍, AP위성
르페르소나	프리미엄 니치 향수	비공개	프리시리즈A	스마트스터디벤처스
에스씨크리에이티브	에이전트 기반 AR·XR 실감 미디어	비공개	기타(비공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렉스이노베이션	에너지관리시스템·가상발전소	비공개	기타(비공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마일	모빌리티 통합 관리 솔루션	50억원	기타(비공개)	어니스트벤처스, 신영증권
팩타고라	생성형 AI 팩트체킹 솔루션	비공개	지원금	팁스
로카101	프리미엄 고시원 브랜드	10억원	기타(비공개)	콜즈다이나믹스
스튜디오에피소드	웹콘텐츠 제작	비공개	인수합병	캐리소프트
피지티	특수정밀 화학 소재	비공개	기타(비공개)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천보

스타트업레시피 | www.startuprecipe.co.kr

기사 제보 : news@startuprecipe.co.kr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57-5 마곡나루역 프라이빗타워 1, 604호

전화 : 070-4048-4013